

'선거여왕' 박근혜 대선 날개달았다

전당대회서 지도부 선출 당 체제 정상화

민생문제 등 총선공약 이행 입법화 착수

4·11 총선의 완성은 새누리당 박근혜 중앙집행위원회에 날개를 달아줬다. 이번 총선에서 100석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예상된 상황에서 선장을 맡아 과반의석(150석) 이상인 152석을 일궈내 그의 당내 입지는 탄탄대로에 올라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 여권의 관심은 '포스트 4·11'이다. '박근혜 체제'의 공고화로 장애물이 걸린 대권기도를 그가 어떻게 관리해나갈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위원장이 가장 먼저 착수할 일은 지난 4개월간의 비상대책위 체제의 정상화로 보인다. 비상상황에서 만들어진 임시체제이므로 전당대회를 거쳐 당 지도부를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1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가능한 빠른 시기에 당을 정상화시키겠다"며 "이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해 당을 정상체제로 운영하고 바로 민생문제 해결과 공약실현을 위한 실무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지도부를 구성할 후보군을 놓고 설왕설래가 시작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당 운영과 관련, "당내에서부터 계파니, 당리당락이니 하면서 분열과 갈등으로 국민에게 실망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내 잡음을 최소화하는 식의 지도부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당 지도부가 구성되는 대로 총선 공약 이행을 위한 입법화 논의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가족행복 5대 약속'을 선거전에서 제시하면서 19대 국회 개원 후 100일 안에 입법하겠다고 약속한만큼 당 정책을 중심으로 세부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은 대선전을 조기접목시키지 않겠다는 의

지도로 풀이될 수 있다. 친박(친박근혜) 진영에서는 대선후보 경선도 최대한 조용하게 치르지는 않겠느냐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여권 대권주자로서 독보적 지위에 있고 야당 후보와의 본선 경쟁을 염두에 뒀을 텐데 당내 경선에 에너지를 소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 친박계 인사는 "굳이 경선이 필요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친박에선 다음달 안에 대선 후보 경선캠프를 꾸릴 계획이지만 규모는 최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에선 원내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역 의원들을 캠프에서 배제하는 게 좋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당선, 감사합니다 4·11 총선 민주당 장병원(광주 남구) 당선자가 12일 지역구 시·구의원들과 함께 광주시 남구 백운동 고가도로 밑에서 큰 절로 유권자들에게 당선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김승남·박혜자·오병윤·임내현·황주홍 초선에 거는 기대 크다

복지·세제 등 각 전문분야 활약 전망

4·11 총선에서 처음으로 금제비를 단 광주·전남지역 초선의원들이 제 19대 국회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주목된다.

이번 총선결과 광주·전남지역 당선자 19명 중 국회에 첫발을 내딛는 초선 의원은 김승남(고흥, 보성)·박혜자(광주 서구 갑)·오병윤(광주 서구 을)·임내현(광주 북구 을)·황주홍(장흥, 강진, 영암) 당선자 등 5명이다. 광주·전남 당선자 중 초선 비중은 26.31%다.

이른바 486세대로 전남대 총학생회장과 국회의원 보좌관, 민주당 부대변인 등을 거친 김 당선자는 농업과 해양수산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청정지역인 고흥과 보성이 선거구인 만큼 생명산업 등의 성장동력을 발굴해 농수축산물에 힘쓰겠다는 게 김 당선자의 주요 공약이기도 하다. 또한, 80년대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486세대 선두주자

는 점에서 12월 대선에서 정권교체에 큰 힘을 보탬 것으로 전망된다.

호남대 교수로 출신인 박 당선자는 복지행정 전문가라는 장점을 살려 복지정책과 관련한 의정활동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자는 "그동안 이론과 현장에서 배우고 익힌 경험을 살려 국내 복지의 틀을 다시 편성한다는 각오로 뛰겠다"고 밝혔다.

전남대 총학생회장과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을 지낸 오 당선자는 초선이지만, 진보정당 사무처장을 지낸 만큼 중앙정치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민노당 사무총장 시절 야권연대 협상 책임자를 맡을 정도로 야당 및 진보세력 인맥도 뛰어나 활발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광주교검장을 지낸 임 당선자는 법조인 출신인 만큼 민주당합당 강조 해운 검찰개혁과 세제개혁 분야에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것으로 예

상된다. 임 당선자는 원외에 있으면서도 민주당합당 법률위원장을 맡을 정도로 중앙당 활동을 의욕적으로 해오며 따라 지도부의 신뢰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3선 단체장을 지낸 황 당선자는 풀뿌리 지방자치 전문가로서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해온 만큼 지방자치 관련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이 의원 활동의 평가 기준으로 삼는 의정·당내·지역구에서 제 몫을 해낼지 여부는 미지수다. 공천권자·계파수장 등 유권자가 아닌 권력의 눈치를 살펴야하는 권력구조 속에서 초선 의원 스스로 계파정치에 빠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인물이 아닌 당'에 의해 당선된 만큼 초선 의원들이 지도부와 계파 눈치를 살펴야 하는 새로운 정치 문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등 뚜렷한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예기도 나오고 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국회부의장·상임위원장 누가 맡나

광주·전남 당선자중 다선 의원 중심 야당 몫으로 거론

4·11 총선이 끝나면서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당선자 중 누가 19대 국회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3선 이상 중견 국회의원 당선자는 4선의 김성곤·이낙연, 3선의 강기정·김동철·박지원·우윤근·주승용 의원 등 7명이다.

우선 민주당이 야당이 된 만큼 부의장 자리를 가져온다고 보면 4선의 두 의원이 가능성이 있다. 하

지만,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5선의 이미경·이석현 의원과 4선의 신기남·유인태·원혜영·추미애 의원 등을 배출했다. 부의장 자리를 차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상임위원장의 경우 광주·전남지역 3선 이상 7명 중 4선의 두 의원과 우 의원은 이미 18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을 지낸 바 있어 다선 상임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따라서 나머지 4명의 당선자가 상임위원장 후보군으로 분

류된다.

오는 5월30일 임기가 개시되는 19대 국회에는 18개 상임위원장이 있다. 여야는 원구성 협의를 거쳐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분해야 한다. 이번 국회 의석점유율을 봤을 때 민주당은 6~8석의 상임위원장을 가져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광주·전남을 제외하고도 전국적으로 20명이 넘는 3선 이상 국회의원을 배출했다. 경쟁률이 '3~4

대 1' 이상이 돼 광주·전남지역 3선 의원 4명이 상임위원장 자리에 앉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이다.

물론 국회가 전, 후반기로 나뉘는 만큼 전반기에 양보하고 후반기에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 상황에 따라서는 4명 모두가 상임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12일 "18대 국회에는 재선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았지만 이번에는 3선 이상이 너무 많아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질 것"이라며 "3선의 상임위원장 선출 문제는 원내대표 경선 출마 여부와 상임위 배치, 연령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더 커진 통합진보 국회의원들 역할 주목

지역민들 "민주당 의원들과 적극 소통 현안 해결 모색해야"

4·11 총선 결과, 광주·전남지역에서 통합진보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2명이나 당선되면서 이들의 역할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두 명의 당선자는 광주 서구을의 오병윤 전 민노당 사무총장과 순천·곡성의 김선동 의원. 지역민들은 이들이 진보정치의 착근이라는 기존

목표 외에 지역 현안의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 시민은 "지역민들은 통합진보당 당선자들이 민주당합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아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소속 정당의 이해에만 신경

쓰지 말고 지역 발전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지역 현안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 의원들과 소통과 협력도 필요하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19개 의석 전부를 민주당이 차지했을 때보다 성과가 나지 않

으면 지역민들은 야권연대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질 수도 있다"며 "부디 통합진보당이 열린 마음으로 민주당 의원들과 논의하고 협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광주지역의 최초 진보정당 지역 국회의원 당선이라는 역사적 성과를 거두었다"며 "한미FTA폐기, 재벌해체, 비정규직 약탈폐기 등 진보정치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전남 3명 등 현역 62% 교체

4·11 총선에서 광주·전남에서는 최인기·조영택·김재근 등 현역 의원 3명이 고배를 마시는 등 여야 중진의 원 상당수가 낙선했다.

새누리당에선 6선 중진인 홍사덕(서울 중로) 의원을 필두로 당 대표를 지낸 홍준표(서울 태릉문), 당 사무

총장 출신인 권영세(서울 영등포), 5선 고지를 노렸던 김영선(경기 일산 서구) 의원 등이 줄줄이 낙선했다.

민주당의 경우 정동영(서울 강남) 의원을 시작으로 천정배(서울 송파), '적진'에 뛰어난 김부겸(대구 수성), 4선에 도전했던 홍재

형(충북 청주 상당)·이강래(전북 남원·순창) 의원 등이 19대 국회에 입성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18대 국회 현역 의원 교체 비율은 지역구를 기준으로 약 62% 선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19곳 중 6곳의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이 자리바꿈을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가은 부동산

상무지구 빌딩매매

-대지 : 257평
-연건평 : 900평
-보증금4억3천만원 월2200만원
-용자금 : 10억원
-매매가 : 38억

아파트 1층 상가 매매

-분양면적 : 106평
-보3억5천만원 월 650만
-용5억포함
-매매가 15억5천만원 (현, 마트 / 치과)

광주시내 2층 주거지역 토지구합

-면적 500-1000평
상무지구 랜덤피아 사거리
010-8289-8549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FAX)223-1772, 011-602-2532 (광주은행 신문점,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호성공인중개사 공장·창고 전문 공장 임대

① 250평 : 전기 300kW (하남) 호이스트5t 보증금5,000만 / 월450만(분할가)

② 120평 : 전기 100kW (평동) 호이스트3t(신축) 대로코너, 보2,000만 / 월220만

③ 100평 : 대로코너, 신축(본촌공단) 보3,000만 / 월230만

★ 물류창고 ★

① 293평 : 하남공단 보5천만/월450만

② 100평 : 본촌공단 보2천/월220만(신축)

★ 공장매매 ★

① 본촌공단 : 대923/건500평 호이스트3t 매매가13억5천만(최근건물)

★ 물류창고 부지매매(금매) ★

★ 어린이집 요양원 부지 ★

① 양산동 25m대로변, 200,300평당 160만

② 신안동 10m대로변, 280평 190만

T. 062) 521-6024 H. 011-602-4207 F. 521-6026

전수열 공인중개사

양산동,연계동,본촌동,신용동,용진동 일대부동산전문

첨단2지구상가, 단독물량다량 확보

상가및근린시설

첨단2지구 빛고을대로 LG자이옆코너 대지:900여평
첨단2지구 인근3000세대, 용두인근3000세대상권
체인음식점,병원,교회등적합 평당:300만

양산택지구토지매매

본촌동원룸부지 300여평 평당:160만
연계동야외테이블정원앞도로변 상가지150평당:250만
본촌동야외테이블,중학교앞도로변:100평당:280만

단독주거지, 주택

양산동,양산초주변주택지37평:6500만(주택별)
양산동,양산동성당주변주택지51평, 평당:110만

광주외곽인근

용진동 도로삼거리코너:1300평 평당:130만
용강동자연녹지 담:900평 평당:13만

시외매도물건

장성군 북이면 임야:13,500평 평당:1만
담양군 대전면 전원주거지역:약700평 평당:50만
신용동생산지지:900평 평당:40만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950번지
T.062)572-8500 FAX:572-0732
휴대폰 011-629-8500, 010-3613-7397

특약 특허등록 : 3개최우수기업으로선정된법원경매정보대한민국대표사이트!

『법원경매』의 길잡이 **다와옥션** 이 함께하는!

검색 | 다와옥션 | 검색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하세요!
www.dawauction.co.kr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다와옥션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근린주택

- 남구 백운동 4층근린주택 1층점포 2-4층다가구 대지195평 건평190평 감정7692천만 최저7896천만
- 영광군 영광읍 2층주거 상가주택 대지153평 건평90평 감정72억 최저71억1천만

단독주택

- 서구 농성동 2층주거 2층주택 대지70평 건물81평 감정2억7천만 최저71억99천만
- 담양군 월산면 농가주택 대지332평 건물45평 감정75천5백만
- 광산구 산정동 2층단독 대지63평 건물71평 전원주택부지 감정71억8천만 최저71억3천만

전원주택부지

- 북산면 대추리 관리지역 대지622평 감정71억3천만 최저71억8천만
- 담양군 창평면 관리취락지역 대지284평 감정73천만

토지매매

- 화순군 도곡면 도곡동전방향 4차선도로변 관리지역 농지1500평 매매 평당50만(조정가능)
- 광산구 대신동 관리지역 전망좋은 치량친입가능 현'백일홍식재(포함매매가능) 매매 8천만
- 신안군 지도읍 당촌리 중도대교앞 생산관리 담7500평 매매 1억7천만(조정가능)

☎ 문의 062-268-8949 (010-4911-4989)

실전기본반 : 매주 수요일

- ☞ 오전 : 10시 30분 / 저녁 : 7시 (3개월, 14주, 25만원)
- ☞ 강사 : 이 정석 교수(저자직강)

실전문자반 : 매주 토요일

- ☞ 오전 : 10시(임정시 오후까지) (3개월, 14주, 50만원)
- ☞ 강사 : 안 성욱 교수(저자직강)

◎ 수시모집중(기수별 선착순 30명)

◎ 국내유명강사 초청 특강(강좌외)

☎ 문의 1588-6115 (010-8004-6767)

남구 월산동 돌고개역 1번 출구/ 신안은행 4층(구.전남경찰청 4거리)